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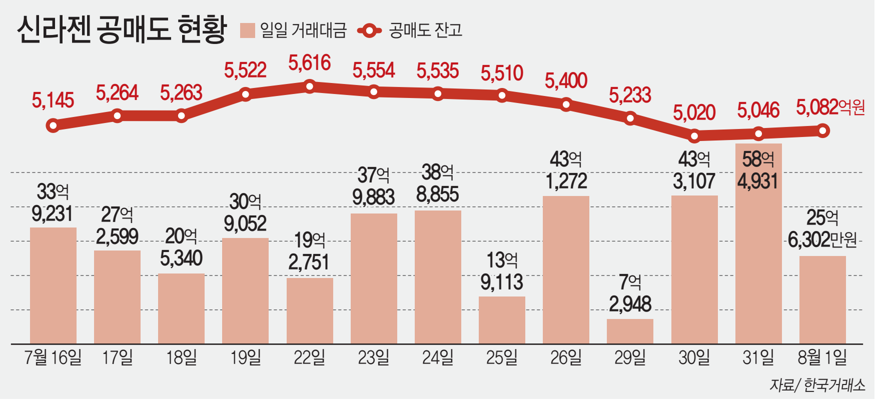
metro®

Economy

제4258호 2019년 8월 7일 수요일

[한일 경제전쟁]
희비 엇갈린
패션매장
현장을 가다
02

코스피	1917.50	(-29.48)
코스닥	551.50	(-18.29)
금리(국고채 3년)	1.16	(-0.01)
환율(원·달러)	1215.30	(0.00) 〈6일〉



신라젠 '공매도' 급증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

임직원, 스톡옵션 대거 행사
30차례 걸쳐 2000억 챙겨
'도덕적 해이' 비난 거셀 듯

신라젠이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1만원대로 추락한 가운데, 임직원들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거액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펙사벡의 임상 3상 중단 발표 직전, 공매도 물량도 급증해 사전 정보 유출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중에, 내부자들이 대규모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 만으로도 '먹튀'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6일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은 가격제한폭(-29.98%) 까지 하락한 1만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조원이 넘던 시가총액은 3거래일 만에 1조 871억원으로 쪼그라들며 시총 순위도 3위에서 15위로 급격히 추락했다. 한때 11만원을 넘어섰던 주가가 상장가(1만3500원) 수준까지 떨어지며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날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하한가에 걸려있는 매도잔량은 220만주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스톡옵션 행사와 공매도를 통해 대규모 차익을 챙긴 내부자들이 있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초 신라젠 신현필 전무는 보유 중이던 주식 16만7777주를 4회에 걸쳐 모두 장내 매각했다. 처분 금액은 약 88억원에 달한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총 156만2844주를 1주당 평균 8만4815원에 매각했다. 약 1325억원 어치 규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분기보고서를 기준, 신라젠 내부에서 지난 2015년 이후 약 서른차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이어졌고, 그 규모는 총 285만주가 넘는다. 특히, 상장 이후 주가가 급격히 상승해 10만원을 넘어서던 지난 2017~2018년 스톡옵션 행사가 집중됐다. 평균 행사가격은 약 3900원 수준, 차익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매도 역시 임상3상 조기 종료 발표 직전 급증하며 의혹을 키웠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韓日 갈등 이어 美中 환율전쟁

韓 경제 '퍼펙트 스톰' 오나

美, 中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일 "일본 수출규제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시장의 안정,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미국 주식시장 급락,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이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은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사실상 '환율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1달러=7위안'이 넘는 '포치(破七)'를 허용한 데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위안화 가치는 2008년 5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내려갔다.

〈4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코스닥 한 때 5% 폭락… 공매도 규제 강화

금융위, 증시상황 점검 대응 간담회

손병두 "단계별 비상계획 이미 마련
적절한 정책 신속·과감하게 시행"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맞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전쟁에 환율전쟁까지 더해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간 데 따른 조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중에서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선택해 신속·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증시 수급 안정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증권유관기관 및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이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지난 2016년 6월 24일 이후 3년1개월여 만에 장중 19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장중 한때 2.83% 급락한 1891.81을 나타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5.08% 폭락한 540.83까지 폭락세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은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낙폭을 줄였다. 연기금 등 기관이 적극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증시 상황을 점검하고, 단기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거래소와 금투협회, 증권·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과도한 반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활용해 시장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우리시장의 회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의 증시 변동성 확대는 복수의 대외적 악재가 겹쳐 발생하면서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일어난 측면이 크다"며 "시장참여자 모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냉정을 되찾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장경영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6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온양캠퍼스를 방문해 경영진과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백홍주 TSP총괄 부사장, 김기남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이 부회장,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관련기사 8면〉 /연합뉴스

위기를 기회로… JY 등 총수, 비상 현장경영

日 규제 관련 대응책 마련 집중
긴급회의 열고 내부 안정화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일본의 규제에 대해 흔들리기 보다 내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관련기사 8면〉

6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점검에 나섰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SK T타워에서 16개 주요 관계사 CEO들을 소집하고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수펙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추구협의회 비상 회의를 주재했다.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는 통상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최 회장이 회의에 참석해 주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최 회장은 흔들림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최 회장은 '그동안 위기 때마다 하나가 돼 기회로 바꿔온 DNA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CEO들은 반도체 등 주요 관계사 사업에서 예상되는 타격과 대응책을 분석하고,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점검했다. 이들은 또 현재 위기극복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에 이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일본 원자재 협력업체를 방문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오며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5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위기 상황 점검과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긴장은 하되, 두려워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